

건설소식

국내외 안전보건경영 인증 '한 번에'

산업안전공단, 5개 기관과 공동인증 협약... 비용·시간 절반으로 줄어

|국내 기업이 기존에 따로따로 받던 국내외 안전보건경영 인증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공단은 해외안전보건경영 인증인 'OHSAS18001'을 담당하는 5개 인증기관 대표와 협정을 맺고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공동인증에 협력키로 했다.

국내 5개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품질보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선급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기준을 경영방침으로 규정화해 재해예방과 기업손실을 감소시키는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한다.

공단은 이번 공동인증 협정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인 'KOSHA18001'을 획득할 경우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HSAS18001'을 함께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개별 신청으로 인해 발생했던 노력과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KOSHA18001' 인증과 'OHSAS18001' 인증을 각각 신청할

경우 1년이 소요되던 것이 이번 공동협정으로 6개월에 두 가지 인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용면에서도 두 가지를 각각 인증받을 경우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던 것이 공동협정에 따라 500만원의 비용에 2개의 인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KOSHA18001' 인증은 산업안전공단이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OHSAS18001'은 영국, 노르웨이 등 13개 안전보건 다국적 기관들이 1999년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인증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인증원에 등록된 5개 인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공동인증 협정체결로 보다 많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영차원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근원적으로 확보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높이고 산업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에 111조 투자

|정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대응 대책과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 연구개발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부가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 까지 R&D 투자(2008년 기준 7천억원)를 2배 이상 확대해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소요재원이 향후 5년간 31조원(공공부문 15조원, 민간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해 예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탄소정보 공개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금융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7%→10%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2030년까지 111조원(설비투자 100조원, R&D 투자 11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 지열 등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그린홈' 100만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고용창출효과는 2030년까지 9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탄소세 도입 검토

정부는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0~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배출권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

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혼잡통행료 확대·자동차 배출규제 강화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점진적 부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도 및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전거 공유·대여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생활 환경 조성대책에는 그린홈·그린빌딩 확대 등을 담았고 에너지절약 우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입찰시대 열렸다

조달청 서비스 시작, 100억원 이하 총액입찰 대상



▲ 휴대폰 입찰 서비스 제공 화면

휴대폰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모바일 입찰시대가 열렸다.

이동 중에도 휴대폰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공사 입찰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KTF가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늦어도 11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모바일 입찰시장에 대한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달청과 이동통신업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공공시설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휴대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장터 휴대폰 입찰 서비스'가 시작됐다.

시설공사의 경우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을 제외하고 가격만 써내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하의 총액입찰만 서비스 대상이다.

서비스 시작 3일 만에 이용체험단 모집에 3,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00명의 체험단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동 중에도 휴대폰으로 입찰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 등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영업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의 모바일 입찰서비스는 지난 2005년 PDA를 이용한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바 있으나 PDA 보급 미

흡과 휴대 불편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휴대폰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1.7%가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도 모바일입찰시대 개막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KTF 관계자는 “콘텐츠 이용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나라장터 회원이 20만명에 달하는데 향후 이들은 PC와 휴대폰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 차원에서 20만명이면 적절한 시장 규모로 볼 수 있으며 법인에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실시 예정인 LGT관계자는 “틈새시장으로 보면 꽤 괜찮은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입찰은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전자입찰 차단을 위해서는 휴대폰에 지문인식기를 연결해 사용해 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별로 6~8개 종류의 단말기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KTF의 경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11월부터 18개종의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용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첫 시작인 만큼 업체별로 판단이 달랐으나 KTF가 월 7,000원을 책정한 만큼 후발주자인 LGT와 SKT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조달청이 휴대폰 전자입찰 조기확산을 위해 통신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인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공조달 입찰 등 나라장터 정보검색 쉬워진다

앞으로 나라장터 이용자들은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전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의 기본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일반포털사이트와 비슷한 환경으로 개선한 나라장터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검색 서비스에서는 입찰정보 관련 공고서, 규격서 등의 첨부파일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으며 정보 검색결과 내 재검색, 검색어 자동완성, 첨부파일 미리보기 등 검색 부가 기능이 제공된다.

입찰정보 검색결과 품목·업종·기관·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필터링(걸러내기)도 가능하며 유형문서 검출기능 등 다양한 콘텐츠 자동수집 기능도 선보인다.

조달청은 또 검색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의 검색 인터페이스로 개선키 위해 나라장터 전용검색 툴바와 개인화 검색 인터페이스, 나라장터 전자서고 등을 제공한다.

나라장터 전용 검색 툴바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입찰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오픈마켓의 장점을 나라장터에 도입해 ‘관심입찰’, ‘찜한 입찰공고’, ‘내가 찾은 검색어’ 등의 개인화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특히 나라장터 전자서고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 법제처 등에 분산돼 있던 다양한 조달 콘텐츠(법령, 제안서 등)를 한 번에 검색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공하는 기업의 경영과 안전 2008



한 국산업안전공단이 기업의 경영과 안전을 총괄하는 경영층의 산재예방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이론과 선진기업의 우수사

례를 주된 내용으로 한 2008년 경영층 안전보건자료 “성공하는 기업의 경영과 안전 2008”을 발간했다.

“성공하는 기업의 경영과 안전 2008”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안전경영을 위한 경영층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기획·제작되었다. 기업의 안전문화는 CEO의 안전경영 철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전보건 콘텐츠 중에는 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기존 개발된 이론 또는 사례 중심의 자료를 탈피, 안전경영 이론과 사례를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경영층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여진다.

| 목 차 |

- 경영환경과 산업재해의 변화
 - 안전보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 산업재해와 경제적 손실비용

- 경영과 안전보건
 - 경영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
 - 위험과 위험관리
 - 경영자의 역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개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절차
- 우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도전! 신나는 수자원 기네스

▲세계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댐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Kariba 댐입니다. 그 규모는 1,806억톤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인 소양강댐 29억톤보다 무려 62배나 큼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은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높이 64m, 길이 344.2m, 체적 41만㎡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섬진강댐은 1961년 8월에 착공해 1965년 12월에 완공된 이후 호남지방의 동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진강으로 방류된 물은 김제평야의 곡창지대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댐은 백제 비류왕(AD 330년) 시절에 축조된 김제의 벽골제로 높이 5.7m, 길이 3,240m, 댐체적 28만㎡입니다.

▲세계 최초의 수도시설은 B.C 1450년경 이집트에서 사용한 시설로 물을 침전시킨 후 사이펀(낙차원리 또는 증류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대의 수도로 대표적인 것은 B.C 312년에서 B.C 305년에 건설된 578km 규모의 로마 수도이며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대식 수도시설은 프랑스에서 1746년경 최초로 소규모 여과 장치를 이용한 방식이며 최초로 정수처리를 시작한 곳은 1832년 스코틀랜드의 Paisley로 최초로 도시규모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염소소독제는 1902년 벨지움의 소도시 Middelkerke 정수장에서 최초로 이용한 후 보편화돼 현재까지 범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기록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강릉 지역에 내린 870.5mm입니다.